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1년 4월 후원미사는 19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1

### 2021년 1~2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52,282,165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체찬조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10,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4,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보수공사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2,45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 공부방	5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2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600,000	제전비 등
	남미공동체	1,000,000	제전비 등
	중국공동체	200,000	의료비 등
	인도네시아공동체	200,000	제전비 등
	상호문화센터	1,4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20,950,000		
시설비	노동사목회관	6,0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간급지원비	이주사목위원회	15,000,000	간급지원금 계좌로 지정기탁 후원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10,332,165	우편비, 출판비 등 운영비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52,282,165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좋은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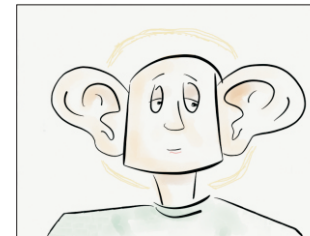
2021. 03 / 제56호

펴낸날 2021. 03. 15.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이광희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 신부님 글

후원회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매우 친숙하지만 다소 이상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주 작은 입, 매우 큰 귀, 그리고 아주 큰 어깨를 가진 남자입니다. 이 "이상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 요셉입니다.



**아주 작은 입** :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그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큰 귀** : 그는 매우 잘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항상 잘 들었기 때문에 잠들어 있을 때도 그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대한 어깨** : 그는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하느님 앞에서 중재하는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3월을 성요셉의 성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8일부터 2021년 12월 8일까지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세운 '성요셉의 해'로도 불립니다. 교황 교서인 Patris Corde(아버지의 마음으로)가 있습니다.

작은 입, 큰 귀, 그리고 넓은 어깨를 가진 남자라는 다소 이상한 이미지 외에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공유했던 성 요셉의 특별한 그림(상) 2개를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좌) **잠자는 요셉의 그림** : 우리는 모든 걱정을 성 요셉에게 맡기고 잠들 수 있습니다. 성 요셉은 잠자는 동안에도 항상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하여 늘 중재하기 때문입니다.

우) **잠자는 마리아의 그림** : 우리 모두는 한 가족으로서 일상적인 업무와 책임, 기쁨과 슬픔에 대해 서로 나누고 협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 교서인 Patris Corde의 끝에 있는 성 요셉의 기도로 마치고 싶습니다.

### 〈요셉 성인에게 바치는 기도〉

구세주의 보호자시며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시여,  
 하느님께서 당신께 외아드님을 맡기셨고, 마리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보호 속에서 성장하셨나이다.  
 복되신 요셉이시여, 저희에게도 아버지가 되시어 삶의 여정에서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은총과 자비와 용기를 얻어 주시고 모든 악에서 저희를 지켜 주소서. 아멘.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원 고 삼 베드로 신부

## 공동체 소식

### 베트남 공동체 소식\*

베트남에서는 설날 미사에 나무를 만들어 말씀사탕을 걸어놓고 하나씩 뜯는 문화(녹탄(LOC THANH): 봄의 새싹이 움튼다)가 있습니다. 이 말씀사탕을 한 해의 하느님 메시지라고 여기고 기억하며 지내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설날에는 미사 시간대를 늘려 본국의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이주민들에게 미사 안에서 위로 받고 설날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설날에는 공소에서 베트남 전통 음식을 함께 먹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올해는 음식을 나누어 주고 헤어질 수 밖에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미사 때 받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고 모두에게 축복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베다니아의 집 소식\*

이주·난민 환자 쉼터인 베다니아의 집이 서울대교구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월 22일 금요일 축복식을 하고 3월 초 보문동에서 명동 셋별관(구 계성여고)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베다니아의 집은 입원과 통원 치료, 요양이 필요한 이주민들에게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노동 현장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보살핌을 받는 이주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또한 인도적 체류 난민 및 이주 노동자로서 구직 전 또는 한국 적응초기 기간에 머물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쉼터에 머무는 동안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쉼터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베들레헴 어린이집 소식\*

1) 최근에 어린이집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시설을 점검하고 고쳐야 할 곳들을 수리하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실내계단의 높이를 낮추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리도록 하였으며, 노후된 어린이집 건물 주변의 옹벽과 옥상을 보수, 방수하는 공사를 마쳤습니다. 어린이집에 머무는 시간동안 어린이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 올해는 5명의 어린이들이 베들레헴 어린이집을 졸업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모님들과 함께 졸업식을 하지 못하였지만 원장 수녀님, 담임 선생님, 위원장 신부님의 기도와 축복 속에 졸업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베들레헴 어린이집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안고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받고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1) <실내계단 보수 공사>



<옥상 방수 공사>



2) <제4회 졸업식>

### 후원미사 소식\*

후원회원과 함께 미사를 드리지 못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 직원들은 매월 세 번 째 월요일 10시에 후원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후원회원분들이 주신 이주민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치지 않고 이겨내시기를 바라며 희망이 되는 사순시기에 더욱 사랑하시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 자원봉사자 소식\*

이주사목위원회의 각 쉼터와 국가별 공동체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현재는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 중에서 20년 동안 한결같이 이주사목위원회 베트남 공동체와 함께해 주시는 류시황 봉사자가 계십니다. 외부활동이 있는 봉사를 하실 때면 감사함과 죄송함이 더욱 커집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는 희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출처 : 2021.02.28 가톨릭평화신문

2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입과 귀가 되어준 인물이 있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에서 베트남어 통역 봉사를 하는 류시황(토마스 아퀴나스, 82, 서울 수유동본당)옹이다. 중학교 수학교사였던 그는 퇴직 이듬해인 2001년 이주사목위에서 통역 봉사를 시작했다. …(중략)…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베트남인은 1년에 60~70명. 주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환자들이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힘든 이들을 병원에 데려가 제대로 된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돕는 게 그의 역할이다. 가장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호자'인 셈이다. …(중략)… 한국과 베트남 양국 사제와 수도자도 그에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 두 나라말에 능한 데다 가톨릭 신앙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까닭이다. 독실한 신자인 그는 오랫동안 예비신자에게 교리를 가르쳤다.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과 베트남 교회 사이 가교 구실을 하게 됐다. 한국에 온 베트남 사제와 수도자에게는 통번역을, 베트남에 선교 가는 한국 사제와 수도자에게는 기초적인 베트남어 교육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어려운 교회 용어를 외국어로 설명하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중략)… 류옹은 베트남어 통역 봉사를 통해 "스스로 필요한 인간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신부님이 교회 안에서 베트남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네 군데에서 전부 저를 추천했대요. 그때 '그동안 하느님의 도구 역할을 잘 수행했나 보다' 싶었죠. 제가 특별히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